

신자유주의에서 도시 커먼즈의 흡수 창조도시 전략과 예술 행동을 중심으로*

The Absorption of Urban Commons under Neoliberalism:
Focused on Creative City Strategy & Art Action

권범철**

본 연구는 예술 스쿼트와 창조도시 전략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하에서 커먼즈(communs)가 처한 흡수의 위험을 다룬다. 창조도시 전략은 오늘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되는 공동체의 활동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하려 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창조성을 경제 발전의 토대로 삼고자 하는 창조도시 전략은 창조성이라는 비물질적 특질이 오늘날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전제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양할 것인가에 관심을 둔다. 이러한 창조도시 담론은 사회 전체가 생산의 계기가 되었다고 이해하는 사회적 공장 및 삶정치적 생산 개념과 유사한 지점을 공유한다. 그러나 창조도시 담론은 자율주의적 마르크스주의 계열의 논자들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실질적 포섭의 상황(사회적 공장)을 오히려 긍정하면서 '생산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두 관점은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창조도시를, 삶 활동을 노동으로 통합하는 삶정치적 기계, 즉 '생산적인' 안전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술가들의 커먼즈는 자율적 삶의 기반에서 도시 경쟁력 향상의 도구로 흡수되고 있다.

이러한 지점은 오늘날 커먼즈가 복합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해 준다. 신자유주의의 위험과 더불어 대안으로 부활한 커먼즈에 주목한 것은 운동하는 주체들만이 아니었다. 축적 전략으로서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의 한계가 뚜렷해지면서 커

* 이 글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도시 공통계의 생산과 전유: 오아시스 프로젝트와 문래예술공단을 중심으로」(2019)의 일부를 발췌, 재구성한 것이다.

** 예술과 도시사회연구소 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강사(paledall@gmail.com)

먼즈는 그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되기 시작했다. 이때 커먼즈는 (자본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본이 선택한 출구였다. 사회적 재생산이 위기를 맞은 오늘날 공동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호명되는 일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커먼즈는 국가와 시장의 대안으로서 굳건한 담론이 아니라, 자본주의 아래 있는 다른 많은 언어들처럼 오염되고 있다. 지금은 현재 진행 중인 그 과정으로부터 커먼즈를 되찾을 시간이다. 이때 커먼즈에 대한 계급적 관점은 흡수의 위험에서 벗어나 재전유를 향한 길을 여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주요어: 커먼즈, 스콧, 창조도시, 사회적 공장, 비임금 노동

1. 들어가며

커먼즈(communs)¹⁾가 대안 담론으로 부상하면서 그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커먼즈를 대안으로 전제하는 그러한 관심 속에서 그것이 처한 위험에 대한 인식은 간과되는 것처럼 보인다. 대항하는 실천들을 흡수하여 더욱 발전하는 자본주의의 역동성 앞에서 커먼즈 역시 비슷한 경로를 따라갈 위험이 있음에도 말이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맞서 싸운 대안지구화 운동에서 커먼즈가 중요한 담론으로 주목 받았지만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운동 진영만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신자유주의하의 정부와 기업 들도 커먼즈에 의지한다. 동즐로(2014: 263)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위기와 함께 “이전에는 국가가 사회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기대됐다면, 이제는

1) 일반적으로 commons는 공유지, 공유재, 공동자원, 공동체 등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 용어들은 모두 commons를 특정한 재화로만 한정하는 한계를 갖는다. 이 글은 이와 달리 commons를 공통재(common goods), 주체(공통인, commoner), 활동(공통화, commoning)을 갖춘 하나의 체계로 다룬다. 이러한 맥락에서 commons는 공통 체계로 풀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용법이 보편적이지 않고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본 글에서는 commons를 커먼즈로 음역하여 사용한다.

국가가 중심의 다원화를 통해 자신의 문제들을 사회로 돌려보냄으로써 사회가 그 문제를 해결할 임무를 떠안게 된다”.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마을공동체 사업들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커먼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커먼즈의 형성이다. 주민들이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그 사업의 주된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업들은 모두 지역 주민들을 조직하는 데 주력한다.

국가가 커먼즈 형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면 기업은 이미 커먼즈를 사업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사례는 물론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다. 이들은 네트워크에서 사용자들이 협력하여 생산한 가치를 전유하는 알고리즘을 사업의 수단으로 삼는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로지르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소위 공유경제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커먼즈를 작동시켜 전유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의 의미하는 바는 커먼즈가 국가와 시장의 대안인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기능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협력으로 부가 생산되는 곳에는 언제나 기생체가 서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협력을 통해 부가 생산될 때 그것의 생산자와 착취자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과 달리, 생산의 장이 사회로 확산되면 부의 생산과 전유는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커먼즈와 관련한 혼란을 겪는다. 마을 공모 사업을 성실히 하고 있는 나는 자율적 대안을 마련하는 중인가, 국가의 일을 대신하며 착취 받는 중인가? 소셜 미디어는 사용자들이 생산한 부를 갈취하지만 2011년 ‘아랍의 봄’에서 유럽을 거쳐 월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휩쓴 연쇄 봉기에서 그랬듯이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커먼즈가 공유와 협력이 조화롭게 일어나는 무대가 아니라, 갈등과 투쟁의 장이라는 것이다. 또한 커먼즈는 국가와 시장의 대안으로서 굳건한 담론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아

래 있는 다른 많은 언어들처럼 오염되고 있다. 지금은 현재 진행 중인 그 과정으로부터 커먼즈를 되찾을 시간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현대 도시에서 커먼즈를 둘러싼 갈등을 이론적인 수준에서 다룬다. 이 갈등에서 중요한 문제는 신자유주의하에서 커먼즈가 놓인 이중적인 상황이다. 커먼즈는 신자유주의적 ‘새로운 중핵’²⁾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흡수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자유주의 전략에서 커먼즈는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글은 그러한 양상을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예술가들의 자율적인 활동, 특히 스쿼트(squat)과 그러한 활동을 흡수하고자 하는 창조도시 전략을 분석한다.

먼저 스쿼트의 성격에 대해 간략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스쿼트는 68혁명 이후 공장에서 사회로 확산된 새로운 흐름, 즉 신사회운동의 조류와 함께한 점거운동과 유사한 성격을 공유한다. 이 시기 점거운동은 유럽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이탈리아의 경우 1969년 ‘뜨거운 가을’ 이후 점거 투쟁은 공장 점거에서 빈 공동주택을 점거하는 공동체 투쟁으로 확장되었다. 주택 점거투쟁은 국가기관을 비롯하여 투기꾼들이 비워 둔 공동주택에 수백 명이 함께 들어가 머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일보호센터, 공동취사, 인민건강센터” 등 새로운 집합적 생활방식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점거 운동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주택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문화적 센터(사회 센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점거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공간은 지역에서 대안 식당, 카페, 서점, 술집, 도서관, 공연장, 회의실, 극장, 주민 학교, 진료소 등의 기능을 하면서 자율적이고 집합적이며 대안적인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갔다(윤수종, 2013: 67~77). 이처럼 빈 건물의 점거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활동은 기존 권력에 맞서고 그것을 장악하기보다 지배 질서의 틈새에

2) 미드나잇 노트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축적과정의 대규모 재조직화에서 비롯된 사태들, 즉 부채 위기, 다양한 사회적 권리의 축소, 사회주의권의 붕괴 등을 ‘새로운 중핵’의 여러 양상으로 이해한다(Midnight Notes Collective, 1990).

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려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점거는 새로운 운동이었으며, 욕망에 기초한 새로운 삶의 실험이었다. 점거는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보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운동이다.³⁾ 본 연구는 이러한 성격을 공유하는 모든 공간을 스콧으로 이해한다.

혁명 이후 점거 운동의 흐름 속에서 예술가들의 스콧이 출현했다. 프랑스의 경우 예술 스콧은 198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김강, 2008: 68). 그중 하나에 대한 짧은 소개를 인용해 보자.

20,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파리지 12구에 위치한 스콧, 알터나씨옹(Alternation)은 2000년 3월 두 개의 예술가 그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 알터나씨옹 건물은 ‘크레딧 리오네’라는 은행 소유였으나, 예술가들의 점거 이후 파리시가 사들인 건물이다. ... (중략) ... 알터나씨옹의 예술가들은 예술과 사회의 연결고리를 활성화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조형 예술가들의 무료 작업실과 전시장, 공연장 이외에도 도서관, 채식주의 식당,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연극 교실, 요가 교실 등 사회문화시설과 함께 공간을 구성하였다. ... (중략) ... 대부분의 전시나 공연 등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알터나씨옹은 스콧 내에 창작실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매년 약 40유로(약 5만 원)⁴⁾ 정도의 회비를 통해 운영된다. ... 그러나 회비를 내지 못하는 예술가의 경우에는 스콧 내부의 운영을 위한 활동으로 회비를 대신하기도 한다. ... (중략) ... 알터나씨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린 회의를 개최한다. 주 1회 저녁 9시 정도에 열리는 회의에는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알터나씨옹에서 거주+창작하

3) 홀러웨이(2013: 346~347)는 스콧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세계에서, 아직 실존하지는 않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사는 시간이다. 우리는 아직 실존하지 않는 세계를, 그 세계를 삶으로써 창조한다. ... 스콧터들은 빈집에서 살기 위해 사적 소유와 지대의 폐지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빈집에서 살 뿐이다.”

4) 알터나씨옹에서 작업한 한 예술가는 월 30유로를 회비로 냈다고 말한다.

는 예술가나, 행사나 전시를 원하는 예술가, 공연 연습을 원하는 예술가, 창작실을 찾고자 하는 예술가 등 어떠한 주제든지 간에 열린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다(김강, 2008: 120~124).

점심때가 되어 공동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안에는 여러 식재료가 많았는데 인근 시장의 노점이나 빵집에서 온 것들이라고 했다. 시장이 끝나갈 때 상차가 나서 팔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을 거둬 온다고 했다. ... (중략) ... 식사 준비는 당번제였는데, 벽에는 날짜별 식사 당번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 밥을 먹다가 문득 이 결핍의 공동체 밥상이 혹시 스콧 공동체의 정신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윤환, 2013: 130~131).⁵⁾

공간의 구성과 운영 방식 측면에서 알터나씨옹은 사회 센터와 많은 점을 공유한다. 그곳의 예술가들은 은행이 소유한 빈 건물을 점거하여 자신들의 작업실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까지 만들어냈다. 또한 누구에게나 열린 회의를 통해 공간을 운영함으로써 폐쇄적이지 않으면서 자율적인 규칙을 만들었고 함께 식사를 해결한다. 이렇게 공동체와 공동체, 공동화가 맞물려 작동한다는 점에서 알터나씨옹은 하나의 커먼즈다. 집합적으로 삶을 재생산하는 이러한 양식은 구체적인 양태는 다르지만 많은 스콧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콧 일반을 우리는 도시 커먼즈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⁶⁾ 덧붙여 강조할 지점은 스콧은 분명 기존의 제도를 거부하는 새로운 삶의 구성이지만 이것이 어떤 갈등의 부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스콧은 기존의 질서, 사적 소유권을 부정하면서 출발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불법으로 점거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존 질서와 길항관계를 맺을 수

5) 알터나씨옹은 2005년 9월 철거되었다.

6) 스콧의 대안적인 가치에 주목하는 연구들, Neuwirth(2007), Erman(2001), 김현숙(2008), 김강(2008), 윤수중(2013) 등을 참고하라.

밖에 없다. 이러한 저항적 성격은 새로운 삶의 구성과 함께 스콧의 주요한 두 선을 이룬다.⁷⁾

2. 신자유주의와 커먼즈

1) 커먼즈라는 체계

신자유주의와 커먼즈의 관계를 다루기에 앞서 먼저 본 연구에서 이해하는 커먼즈를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데 안젤리스는 커먼즈를 공통재, 공동체, 공통화라는 세 가지 요소가 상호 결합하면서 이루는 하나의 체계로 이해한다. 그의 논의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공통재(common goods)는 다수를 위한 사용가치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것은 탈자본주의적인 의미에서 공통재를 정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데, 대량 생산되는 상품 역시 다수를 위한 사용가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재화가 공통재가 되려면 소유권(property rights)과는 다른 의미에서 그 재화에 대한 책임감(ownership)을 주장하는 공동인들의 집합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공통재는 이중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데 그것은 사용가치를 제공하는 재화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객체이면서 다수의 주체들의 책임감을 요한다는 측면에서 주체적 성격을 띤다. 이러한 지점이 바로 커먼즈를 사회적 체계로 이해하기 위한 길을 열어준다(De Angelis, 2017: 29~32). 다음으로 공통화는 공통의 행위로서, “커먼즈 영역 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행위(사회적 노동)의 형태”(121)를 가리킨다. “이를 통해 공통의 부와 공동인들의 공동체는 사물, 사회적 관계, 정동, 결정, 문화의 (재)생산과 더불어 (재)생산된다”(119). 마지막으

7) 본 연구는 실제 스콧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보다 스콧과 창조도시 전략의 길항 관계를 이론적인 수준에서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둔다.

로 공동체는 “다수의 공통인들과 그들의 정동적·사회적 관계”를 가리킨다. 이것의 진정한 성격은 “공통화의 많은 순간 속에서 출현한다”(124). 이러한 공동체는 어떤 동일성을 바탕으로 상상된 집단이 아니라 현실의 상호교류 속에서 출현하는 사회적 관계다. 즉 “커먼즈의 인식론에서 공동체는 공통인으로서, 즉 그 자원을 공유하고 돌보고 개발하고 만들고 재창조하는 사람으로서의 주체들과 그들의 상호관계들의 집합”(126)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커먼즈를 하나의 사회적 체계로 파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데 안젤리스에 따르면 체계는 언제나 또 다른 체계들로 이루어진 환경과 관계 맺는다. 즉 커먼즈라는 체계는 자본/국가라는 체계들과 상호작용한다. 여기서 자본주의가 ‘축적을 위한 축적’이라는 가치 실천을 중심으로 다른 사회적 체계들을 포섭하는 하나의 사회적 체계라면, 커먼즈는 공생공락, 연대와 호혜의 관계 등 다른 대안적 가치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본주의(혹은 국가)와 커먼즈를 각각 하나의 사회적 체계로 이해함으로써 이후 도시 커먼즈를 둘러싼 갈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지점은 커먼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정한 사회적 체계가 커먼즈 형태를 띌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커먼즈의 작동을 흡수하거나 그 작동 방식을 모의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우리는 이후 논의에서 창조도시가 바로 그러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2) 신자유주의와 커먼즈의 흡수

신자유주의는 시공간적인 맥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만큼 그에 대한 이해 방식도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은 전후 구축된 사회적 거래와 공적인 것 혹은 공통적인 것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으로 이해된다. 하비(2007: 15)에 따르면 그것은 “강력한 사적 소유

권, 자유 시장, 자유무역의 특징을 갖는 제도적 틀 내에서 개인의 기업가적 자유 및 기능을 해방시킴으로써 인간 복지가 가장 잘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는 정치적·경제적 실행에 관한 이론”이다. 이것은 그가 “강탈에 의한 축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요 메커니즘으로 갖는데, 이는 토지의 상품화와 사유화, 소농 인구의 추방, 공유·집단·국가 자산 등 다양한 형태를 띤 소유권의 배타적 사유재산권으로의 전환, 커먼즈의 억압, 노동력의 상품화와 대안적인 생산·소비 형태의 억제 등으로 나타난다. 그는 이렇게 신자유주의화의 본질적이고 주된 “업적”이 부와 소득의 창출보다는 재분배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종획(enclosure)의 지속성을 강조한다(194). 그에 따르면 강탈에 의한 축적은 과잉축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이다. 자본주의는 확대재생산이라는 자신의 작동 원리의 필연적인 결과로 과잉축적의 압박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을 자신의 외부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초’ 축적은 더 이상 자본주의와 관련이 없는 지나간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일이며, 그것의 선봉에 있는 사유화는 커먼즈의 종획이라는 효과를 낳는다(하비, 2005).

여기서 종획은 신자유주의의 주요 기제 중 하나다. 여러 이론가들이 이 종획의 위협을 커먼즈가 부상하게 된 계기 중 하나로 설명한다. 모든 것을 시장 논리에 종속시키려는 그 시도가 다른 대안으로서 커먼즈에 주목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⁸⁾ 그러나 그 대안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은 흡수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와 그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자본의 대안이 아닌 출구 전략으로 커먼즈가 전유되는 것이다(Caffentzis, 2010; 2004; Caffentzis & Federici, 2013; De Angelis, 2009; 2007). 데 안젤리스에 따르면 이것은 신자유주의와 자본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흐름에서 발견된다.

8) 나오미 클라인(2012)은 대안지구화운동의 운동들이 ‘커먼즈를 되찾자’는 정신을 공유한다고 말한 바 있다.

중획과 커먼즈의 대립이 오늘날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의 함의가 지닌 급진성이 충분히 이론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중획하는 세력을 일반적으로 정책(예를 들어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측면에서만 담론적으로 식별하기 때문이다. 이 정책들을 자본 고유의 충동이 지닌 특별한 역사적 형태로 이해하기보다 말이다. ...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특별한 역사적 시기에 나타나는 자본가의 전략을 식별하기 때문에, 자본의 대안을 다루는 효과적이고 지적인 담론은 다양한 역사적 시기에 공통적인 자본의 내재적인 충동과 역사적 우발성을 절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조적’ 마르크스주의자가 전략의 역사적 형태보다 ‘내용’을 우선함으로써 이 절합에 실패한다면, 운동 내부의 다른 많은 접근들은 ‘내용’, 즉 자본의 충동과 절합하지 않고 역사적 형태만을 강조한다. 따라서 둘째, 이 후자의 접근법에서 커먼즈는 ... 자본에 대한 대안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실천이 아니라 보통 대안적인 ‘정책’으로 이해된다. 여기가 자본이 커먼즈를 흡수할 위험이 있는 곳이다. 예를 들어 창조성과 혁신을 촉진하지만 그런 다음 시장을 통해 다른 커먼즈에 맞서고 대립하는 형태로 절합되는 사회적 관계들의 공간처럼 말이다(De Angelis, 2007: 145, 강조는 인용자의 것).

데 안젤리스가 “운동 내부의 다른 많은 접근”에서 발견하는 커먼즈는 자본에 대한 대안적인 실천이라기보다 그 역사적이고 특수한 형태—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인 ‘정책’이다. 이를 통해 “커먼즈라는 사고는 점점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는 그것의 구원자로서 기능하는 것처럼 보인다”(De Angelis, 2009). 이러한 정책이 신자유주의로부터 위기를 맞은 이들이 아니라 자본 자체를 구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례 중 하나가 “전 지구적 커먼즈”(global commons)라는 개념이다. 카펜치스와 페데리치는 세계은행이 전 지구적 커먼즈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았던 사람들을 숲에서 내쫓고 화폐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한다.⁹⁾ “세계은행은 시장 — 게임파크나 에코투어리즘 지구라는 형태로 — 이 가장 합리적인 보존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유엔 또한 세계의 주요 생태계 — 대기, 바다, 아마존 숲 — 를 관리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그것들을 “인류의 공통 유산을 보존한다”는 명목하에 상업적 착취에 개방한다”(Caffentzis & Federici, 2013).¹⁰⁾

카펜치스는 이와 관련하여 커먼즈를 좀 더 명시적으로 구분한다. 그는 커먼즈 담론이 “필연적으로 반자본주의적”이라는 그릇된 가정 때문에 그 개념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본다. 그는 “① 자본주의적 축적과 양립가능하며 그것에 힘을 더하는 친자본주의적 커먼즈와 ② 자본주의적 축적에 적대적이고 전복적인 반자본주의적 커먼즈”를 구분하면서 그 개념이 지난 이중적인 모순된 기능을 밝히려 한다(Caffentzis, 2010). 그는 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케인스주의 경제학이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대체하며 지배 계급에게 출구를 제공했던 것처럼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위기를 맞이함에 따라 커먼즈가 하나의 출구로 고려되고 있다고 주장한다(Caffentzis, 2004). 그에 따르면 이러한 전환은 199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1992년 세계은행이 낸 세계개발보고서(World Bank, 1992)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이 보고서는 대규모 기관보다 마을공동체 같은 미시사회적 제도들이 더 훌륭하게 자원을 관리할

9) Isla(2009)는 교토 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가 어떻게 코스타리카에서 자급 공동체를 파괴했는지 보여준다. 탄소 배출의 주요 원천인 선진산업국은 배출 절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국의 배출량을 줄이기보다 발전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하거나 탄소배출권을 매입한다. 이에 따라 우림(rainforest)이 CO₂를 흡수하는 ‘자연자본’으로 가치화되면서 코스타리카는 대대적인 조림 사업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자급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수많은 농민 가족들이 사업 지역에서 쫓겨나 도시 빈민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종획 이후 해당 지역은 복구 관광객을 위한 에코투어리즘의 명소로 전환되었고, 쫓겨난 이들 중에서도 달리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던 여성들은 마찬가지로 복구 남성 관광객을 위한 섹스투어리즘의 종사자가 되었다.

10) 마리아 미즈와 반다나 시바는 이 개념을 다국적 기업이 지역 공동체의 자원을 사유화하는 첫 단계로 이해한다. 이에 대해서는 Mies & Shiva, 1993 참조.

수 있다고 인정한다. 카펜치스는 이러한 입장의 전환을 신자유주의적 토지 및 자원 사유화에 맞서 1980년대부터 진행된 중앙아메리카, 아프리카의 강력한 투쟁들의 결과로 해석한다. 그 저항들이 간단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거세짐에 따라 세계은행은—카펜치스가 ‘플랜 B’라고 부르는—대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그 대안이란 1980년대 구조조정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바꾸었던 ‘새로운 종획’과는 달리 농지나 숲 등의 커먼즈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자본 축적에 안전한 프로그램으로 흡수하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세계은행은 커먼즈 관리의 몇 가지 양상들, 가령 공동자원, 공동체 참여 그리고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가 갖는 중요함을 살펴왔다. 공동체는 신용조합을 만들어 ‘금융 화폐 커먼즈’를 통해 저축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그것의 분배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지만, 개발 기관은 동일한 원리에 의존하면서 공동체를 은행과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 제도에 묶어두고 이를 통해 그들이 전 지구적인 시장 회로에 더욱 의존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방식으로 커먼즈에서 양성되는 연대와 협력의 유대는 시장 이익에 복무하는 상호 통제와 수치심의 위협으로 바뀐다 (De Angelis, 2013).

요컨대 커먼즈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지만 자본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 학계와 기관의 새로운 출구 전략으로 흡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가 축적 전략으로서 종획의 기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다. 전 지구적 커먼즈 개념이 종획의 수단으로 이용된 위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종획과 흡수는 “새로운 자본주의적 전략의 두 가지 상호보완적인 좌표”(De Angelis, 2013)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커먼즈의 흡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이들은 그러한 커먼즈를 “비뚤어진”(데 안젤리스) 혹은 “친자본주의적인”(카펜치스) 등의 수

식어를 붙여 구별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구별이 현실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데 있다. 지역 주민/예술가들의 활동이 삶의 가능성을 확장시킬 것인지 아니면 수많은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처럼 결국 자본의 이윤 축적 수단으로 기능할 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마을공동체 ‘사업’들은 아래로부터의 커먼즈를 확장하기 위한 것인가, 새로운 통치 전략인가?¹¹⁾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쉽게 답할 수 없다. 카펜치스는 인류학자 메이야수가 연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마을을 사례로 들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다. 메이야수는 그곳의 자급생산 커먼즈가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한, 남성 노동자들을 현금 작물 경작이나 다른 임금 노동을 위해 ‘해방’시키기 위한 국제 자본주의의 필요에 부응한다고 주장한다. 대부분 여성들이 수행하는 ‘마을’의 노동이 남성 노동자들의 재생산 비용을 절감시키기 때문이다(Meillassoux, 1981. Caffentzis, 2004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것이 커먼즈의 유일한 역할은 아니다. 파업기간 중에 노동자에게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을이 있다는 것은 사장에게 대항하는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현실에서 커먼즈의 양 측면을 일반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자본에 대항하는 노동자에게 더 많은 힘을 줄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를 더 착취할 수 있는 자본의 능력이 될 것인가?”(Caffentzis, 2010) 그것은 결국 커먼즈와 자본의 힘 관계에 달려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선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자본이 상호보완적인 전략—종획(커먼즈의 강탈)과 흡수(커먼즈의 자본주의적 이용)—을 갖는다는 것은 커먼즈와 자본의 관계가 대립적인 것만이 아니라 좀 더 복잡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데 안젤리스는 그 양자간 관계의 예를 간단한 표로 정리한다.

이 표는, 자본과 커먼즈가 모두 자신의 외부에서 생산된 자원들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커먼즈가 자본주의적 산업의 생산물을 필

11) 박주형(2013)을 보라.

〈표 1〉 커먼즈와 자본/국가의 상호 의존

커먼즈	커먼즈가 의존하는 자본의 복합적 산물
위키피디아	중앙컴퓨터, 케이블, 사적으로 생산된 전기 등을 비롯한 분산된 인프라
공동체 기반 농업 네트워크	트럭, 연료, 전기, 도로 네트워크
자본/국가	자본/국가가 의존하는 커먼즈의 복합적 산물
대규모 이벤트	자원봉사자와 그들을 뒷받침하는 가정
경찰	마을 감시에서 비롯한 정보, ‘시민’ 행동
노동력	가정의 재생산 노동

자료: De Angelis(2017: 333)의 표를 수정.

요로 한다면, 자본은 사이버 공간의 P2P 네트워크에서 창조된 자원에, 가정에서 재생산된 노동력 등에 의존한다. 즉 자본과 커먼즈는 공생 관계에 있다. 그러나 두 체계가 서로를 이용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데, 자본/국가가 커먼즈의 이용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반면 커먼즈는 보통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세금 등)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커먼즈와 자본/국가는 후자가 전자에 기생하는 공생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De Angelis, 2017: 334~335).

“자본은 점점 기생적 존재가 되고 있다”는 네그리와 하트(2014: 212)의 말은 이렇게 산 노동의 자율적 협력이 만들어 낸 커먼즈를 자본이 흡수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기생체는 숙주의 죽음을 욕망하지 않는다. 즉 자본은 커먼즈를 파괴하기보다 그것을 관리하고 조정하려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종획의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 다만 지식, 정보, 창조성, 정동 등이 중요한 생산적 기능을 담당하게 될 때 커먼즈의 파괴보다는 그것의 관리, 조정, 흡수가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는 것이다. 그 비물질적인 생산과정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의 고정자본들은 “노동자의 두뇌 안에 그리고 노동자의 영혼 안에”(마라찌, 2014: 131)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자본에게 중요한 문제는 커먼즈를 파괴하기보다 자본주의적으로 전유하는 것이다.

자율적으로 생산되는 공통의 부를 어떻게 특정한 가치회로를 따라 흐르게 할 것인가? 아마도 이것은 오늘날 자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커먼즈의 흡수를 주요한 문제로 제기하면서 창조도시 전략을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해한다. 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창조성의 사회적 생산과 전유이기 때문이다.¹²⁾

3) 도시 커먼즈의 흡수: 집합적 상징자본

하비(2014)는 『지대의 기술』(The Art of Rent)이란 논문에서 집합적 상징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도시 커먼즈의 흡수를 다룬다. “어떤 장소에 특별한 차별성을 부여하는” 집합적 상징자본은 특정한 공간을 유일무이한 매력을 지닌 곳으로 만들어 독점지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힘이다. 여기서 문화예술은 중요한 요소인데 지역이 내세우는 진정성, 독특함, 차별성 등은 문화적인 혹은 역사적인 것을 기반으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¹³⁾ 어디에도 없는, 복제할 수 없는 그 요소들은 신자유주의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에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자본은 지역의 차이, 지역 문화의 차이, 미적 의미 등에서 잉여를 뽑아내고 전유하는 수단을 갖고 있다”(192).

이렇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 정부는 도시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한다. 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든, 외국인 투자

12) 창조도시에 대한 비판은 이미 많은 문헌에서 제기된 바 있지만 커먼즈의 흡수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충분히 문제화되지 않았다. 또한 커먼즈의 흡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진 정책들(마을 만들기, 도시 재생 등)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3) 하비(2014: 183)는 이렇게 묻는다. “독특함과 특수함, 진정성과 특별함을 주장하는 것이 독점지대를 획득하는 능력의 토대를 이룬다면, 역사적으로 구성된 문화적 산물과 관습, 특별한 환경적 특징(건조환경, 사회환경, 문화환경 등)만큼 내세우기 좋은 것이 있을까?”

를 유치하기 위해서든, ‘창조계급’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든 도시를 잘 포장된 상품으로 가공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 집합적 상징자본이라는 개념은 이 상품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의 상징적 성분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파스퀴넬리(2013: 264)는 오늘날 상품의 전체 가치는 물질 노동과 인지 노동 그리고 공중(公衆)이 가져온 상징적 가치에 의해 생산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가치가 임금 노동과 이윤으로 설명된다면, 두 번째 가치는 디자인과 지적재산의 가치다. 그리고 세 번째 가치는 “공중들, 매스미디어, 광고의 주목경제에 의해 생산된 브랜드 가치”를 나타낸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가치의 상징적 성분은 사회적 공장에서 생산되는 가장 중요한 범주다. 따라서 특별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이 매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자본과 갈등을 빚는 활동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예술 스콧도 예외가 아니다. 스콧이 어떤 동기에서 시작되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새로운 삶을 위한 실험들은 이제 도시의 스펙터클, 즉 ‘유일무이한 매력’으로 전환된다. 도시 예술가들의 다양한 활동에 기반을 둔(혹은 파인코드화된) 이미지가 형성되고, 그것은 독점지대의 토대로 전환된다. 그 “비물질적 과정을 통해 가치화되는 물질적 공간에 대한 지대”(파스퀴넬리, 2013: 266)는 도시 커먼즈를 흡수하는 장치다.

우리는 여기서 마르크스(2008: 87)의 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부는 하나의 ‘거대한 상품 집적’으로 나타”난다 —을 변주한 두 사람을 통해 집합적 상징자본의 작동을 이해할 수 있다. 데 안젤리스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다. “탈자본주의 사회의 부는 ... 공통재의 집합, 공통의 부로 나타난다”(De Angelis, 2017: 29). 한편 기 드보르(1996: 10)에 따르면 “현대적 생산조건들이 지배하는 모든 사회들에서, 삶 전체는 스펙터클들의 거대한 축적물로 나타난다”. 이제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세 사람의 말을 이어보자. 스콧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로 나타나는 상품을 공통재로 전환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탈자본주의 사회를 향한 움직임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쟁력을 추구하는

도시는 그러한 삶 활동을 스펙터클로 전유한다. 이것은 마치 출구가 가로막힌, 상품에서 공통재로 다시 스펙터클로 통합되는 현대 도시의 변증법처럼 보인다.

집합적 상징자본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자율적인 활동을 단순히 흡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는 도시 정부는 보다 전략적으로 도시 커먼즈를 모의하고 양성하며 촉진한다. 그러한 시도는 재생산 영역을—가령 교육, 의료, 물, 교통 등을 사유화하면서—직접적인 축적의 마디로 전환하는 신자유주의하에서 이미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예술가들의 활동을 대상으로 삼는 전략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인 창조도시는 신자유주의하에서 도시 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출현했다. 창조성을 경제 발전의 핵심으로 이해하는 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그것을 관리하고 양성하는 문제다. 이 전략의 작동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신자유주의에 대한 하나의 이해를 살펴볼 것이다.

4) 통치성으로서의 신자유주의

푸코의 신자유주의 분석은 그것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의 장을 연다. 푸코에게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신자유주의를 분석하는 이들에게 그것은 시장화를 위한 국가의 정책도,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도 아니다.¹⁴⁾ 푸코는 신자유주의를 하나의 통치성(governmentality)으로 파악한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통치성이란 “인구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정치경제학을 주된 지식의 형태로 삼으며, 안전(security)장치를 주된 기

14) 예컨대 푸코의 논의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는 웬디 브라운(2017)은 신자유주의를 “인간 그 자체를 비롯해 인간의 모든 영역과 활동을 특정한 경제적 이상에 맞춰 변형시킨 통치 합리성”, “규범적인 이성의 질서”(8), “존재의 모든 측면을 경제적 관점에서 직조하는 특수한 이성 형태”(16)로 정의한다.

술적 도구로 이용하는 지극히 복잡하지만 아주 특수한 형태의 권력을 행사케 해주는 제도·절차·분석·고찰·계측·전술의 총체”다(푸코, 2011: 162 ~163). 우리의 분석에서 통치성이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커먼즈의 흡수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먼저 통치성의 주된 도구인 안전 메커니즘의 특성을 살펴보자.

푸코(2011)는 서구 사회에서 출현한 지배 메커니즘을 세 가지로 구별하는데 주권, 훈육, 안전이 그것이다. 주권 메커니즘은 중세에서 시작해 17~18세기까지 이어진 것으로서 행동의 허가와 금지, 그에 대한 처벌로 구성된다. 두 번째인 훈육은 18세기부터 정착된 근대적 체계로서 여기서는 개인을 감시하고 변형하는 기술이 등장한다. 세 번째 안전장치는 어떤 현상을 사건으로 간주하고 그와 관련한 비용을 계산하며 최적의 수준에서 관리하는 형태를 띤다(26~27).¹⁵⁾

지배 메커니즘에 대한 푸코의 분석이 우리의 논의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그것이 공간을 통한 권력의 행사를 다룬다는 것이다. 푸코는 주권과 훈육 그리고 안전이 공간을 다루는 상이한 방식을 보여준다(17~53). 주권에서 도시가 영토의 구축에 입각하여 배치되었다면 훈육에서 도시는 공간의 사용과 주거 계급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공간 내에 있는 다양성을 훈육적으로 다룬다. 푸코가 18세기 도시정비를 사례로 들어 설명하는 안전 공간은 이와 달리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구별하고 전자를 극대화하면서 후자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부정적 요소는 결코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은 그와 관련된 확률을 다룬다. 출산율, 사망률, 사고율, 성장률, 감소율 등 확률을 계산하여 무수한 계열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 메커니즘의 본질적인 성격이다. 요컨대 안전은 “사건들이나 일어날 법한 여러 요소의 계열에 대응해 환경(milieu)을 정비”(48, 강조는 인용자의 것)하려고 한다.

15) 푸코는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을 구별하면서도 그것들이 서로 융합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주권-훈육-안전의 순서로 단절된 메커니즘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상관관계가 변하면서 다른 지배 형태가 등장한다.

안전장치의 확률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개인들의 무리”(50)로 정의되는 인구가 환경 속에서 어떤 자연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종으로 설정된다는 사실이다. 환경은 일종의 자연처럼 작동하면서 인구에 효과를 낳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종의 상태를 바꾸고 싶을 때 주권자는 이 환경에 [일정한] 작용을 가해야 한다”(53). 여기가 “인간이라는 종의 근본적으로 생물학적인 요소를 정치, 정치적 전략, 그리고 권력의 일반 전략 내부로 끌어들이는 메커니즘의 총체”(17)인 생명권력이 작용하는 지점이다.

그에 따라 주권과 훈육, 안전은 상이한 메커니즘으로 나타난다. 훈육이 모든 것을 규제한다면 안전장치는 방임한다. 안전장치는 사건을 선악으로 평가하지 않고 자연적이기 때문에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집행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법체계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한다면 훈육은 해야 할 것을 정한다. 반면 안전장치는 허용과 금지의 코드를 갖고 있지 않으며 사건의 본성이라는 수준에서, 사건의 실제적 현실이라는 수준에서 사건을 재포착하려 한다. 그렇게 현실의 요소들로 이루어지는 조절이 안전장치에 근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현실과의 유희 안에 머무르는 것은 바로 자연의 질서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며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전제하고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안전장치는 자유주의와 깊게 연결된다. 인간의 통치를 위해서는 이제 인간의 본성, 자유를 사유해야 한다는 관념, 이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권력의 테크놀로지다(83~88).

이러한 권력의 테크놀로지에서 도시 문제는 핵심적인 사례로 나타난다. 도시를 권력의 중심 메커니즘으로 통합하기 위해 17~19세기에 일어난 이 새로운 권력메커니즘이 바로 안전장치다. 푸코는 이 메커니즘에서 새로운 통치 대상이 된 인구의 자연성이 등장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파악한다. 첫째, 18세기의 사유에서 인구는 일련의 변수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즉 주권자의 의지를 단순히 관철시킬 수 없는 자연적 현상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개입의 불가능성을 의미하

지는 않았다. 인구라는 자연성은 변형의 동인과 기술에 늘 열려 있었고 따라서 계산·분석·고찰을 통해 인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한다. 이처럼 변형가능한 자연성이 권력 장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둘째, 인구는 상이한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지만 욕망이 인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에서 인구의 자연성이 등장한다. 인구의 욕망은 자연적인 것이므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추겨 이로운 효과를 내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셋째, 인구의 자연성은 여러 현상의 항구성 속에서 출현한다. 불규칙하게 보이는 현상도 관찰하고 통계화하면 규칙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는 스스로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자연으로 파악될 수 있다.

결국 인구는 주권자의 의지와 관계를 맺는 사법적 주체의 집합이 아니다. 인구는 일련의 요소로 이루어진 집합, 고유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자연이다. 인구와 함께 권력기술의 영역에 일종의 자연이 들어온 것이다. 인구는 한편으로는 인간종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중’으로서, 생물학적 자연이면서 또한 캠페인, 교육 등을 통해, 변수에 대한 개입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다. 푸코는 인구와 함께 주권이나 군림이 아니라 통치¹⁶⁾가 근대 정치의 문제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안전-인구-통치라는 계열이 중요하게 대두된다(121~124).

그렇다면 이러한 통치성으로서 신자유주의의 특성은 무엇인가? 푸코(2012: 191)는 신자유주의에게 중요한 문제는 시장을 어떻게 재단하느냐가 아니라 “포괄적인 정치권력의 행사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시장이란 등가에 기초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시장의 본질이란 18세

16) 이 통치(government)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정부 기관의 정치적 통치만이 아니다. 푸코는 통치라는 용어를 국가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한 통치, 타자에 대한 통치, 가족 통치, 경제 통치, 국가 통치 등 국가를 넘어서 실행되는 다양한 권력의 테크놀로지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다(김주환, 2012: 213).

기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가정했던 ‘교환’이 아니라 ‘경쟁’에 있다(184). 따라서 신자유주의자들이 구상하는 사회는 상품교환이라기보다 “경쟁메커니즘이 조절 원리를 구성하는 사회”, “경쟁의 역학에 종속된 사회”, 즉 “기업사회”다(222).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관건은 사회 내에 “기업’의 형식을 과급시키는 것”, “시장, 경쟁, 그러므로 기업을 사회에 형식을 부여하는 힘”으로 만드는 것이다(226).

푸코는 이렇게 신자유주의를 하나의 통치술로 해석하면서 인구라는 자연을 관리하는 안전장치의 특성을 보여준다. 우리가 주목하는 창조성 역시 인구의 ‘자연적’ 생산물이라는 점에서 안전장치는 그것의 관리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그러나 푸코의 논의는 지배 장치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작동하는 주체들의 생산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은 누락되어 있다. 그에 따라 “푸코가 최종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생명정치 사회에서 생산의 현실적 동학이다”(네그리·하트, 2001: 59). 이와 달리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논의는 오늘날 도시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생산의 동학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우리는 이들의 논의를 통해 창조성의 사회적 생산 및 전유 메커니즘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다.

5) 사회적 공장과 삶정치적 도시

1960년대 이탈리아의 오페라이스모(*operaismo*)¹⁷⁾ 진영에 속한 이론가들에게서 출현한 “사회적 공장(*social factory*)”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관계가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에 종속되는 양상을 가리킨다. 오페라이스모

17) 오페라이스모를 노동자주의로 옮기기도 하지만 하트에 따르면 이것은 문제적이다. “노동자주의(*workerism*)”라는 말의 영어 용법과 프랑스어 ‘ouvrièrisme’는 이탈리아어 ‘fabrichismo’에 상응한다. 이 용어들은 공장 밖의 사회적 투쟁의 힘을 인식할 수 없거나 인식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을 경멸적으로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Hardt, 1990: 249. 쏘번, 2005: 206에서 재인용). 오페라이스모(와 아우토노미아)에 대해서는 쏘번(2005)의 4장과 Wright(2002)를 참고하라.

의 핵심 이론가 중 한 명인 트론티는 이 양상을 이렇게 설명한다.

자본주의 발전이 더욱 진전함에 따라, 즉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 더욱더 모든 곳에 침투함에 따라, 생산-분배-교환-소비의 회로는 필연적으로 더욱더 발전한다. 말하자면 자본주의적 생산과 부르주아 사회 사이의 관계, 공장과 사회 사이의 관계, 사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는 더욱 더 유기적으로 된다. 자본주의적 발달의 최고 수준에서 사회적 관계는 생산 관계의 계기로 전환되며, 사회 전체는 생산의 절합으로 된다. 즉 사회 전체가 공장의 한 기능으로 살아가며 공장은 자신의 배타적 지배를 사회 전체로 확장한다(Tronti, 1966, 강조는 원저자의 것).

사회적 공장이란 명제에서 사회적인 것 자체는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로 종속된다. 우리는 이 사회적 공장을 앞서 이야기한 삶정치적 생산의 무대로 그려볼 수 있다. 삶정치적 노동에서는 생산 시간과 여가 시간(삶 시간)의 구분이 흐려지면서 삶 그 자체가 생산의 계기로 되기 때문이다. “생산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아이디어나 관계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노동 시간은 삶의 전체 시간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네그리·하트, 2008: 162). 가령 게임 회사의 개발자가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집에 가는 버스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혹은 잠들기 전에 고민할 때 이 개발자의 노동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한정할 수 있을까? 비디오게임 제작사의 한 임원은 자신의 회사의 개발자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오전 5시에 작동을 멈추는 기계와는 달리, 우리의 기계는 아마 집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의 전체적인 삶의 경험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위한 잠재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다위어-위데포드·드 퓨터, 2015: 126, 강조는 인용자의 것).

이 임원의 인터뷰는 노동 시간이 삶의 전체 시간으로 확장된다는 사실뿐 아니라 트론티가 이야기한 대로 사회적 관계가 생산 관계의 계기로 전환되는 측면을 무심코 드러낸다. 개발자들의 아이디어가 “전체적인 삶의 경험”에서 생겨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게임 개발을 위한 원천이 그들의 사회적 관계라는 점 말이다.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게임 개발에 응용될 수 있다. 그가 읽은 책, 친구와의 대화, 우연히 마주친 거리의 풍경 …… 이 모든 것이 게임 개발을 위한, 즉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을 위한 원료가 된다. 따라서 게임이라는 상품의 생산은 게임 제작사의 사무실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생산과정은 사회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전체적인 삶의 경험”은 상품 생산과정에서 계산되지 않는, 따라서 자본이 무상으로 취하는 원료다. 즉 그것은 자본의 공통재와도 같다. 현대 도시는 이러한 공통재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떠다니는 장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도시적 삶이 사회적 삶을 대변한다고 볼 때 도시 그 자체를 오늘날의 공장이라고 볼 수 있다(권범철, 2017).

사회적 공장=도시의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네그리와 하트가 이야기하는 삶정치적 도시를 살펴보자. 이것은 그들이 사회적 공장을 말하는 또 다른 표현법이다.

도시 자체가 공장이라는 등식은 자본주의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도시가 이전과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음을 뜻한다. 네그리와 하트(2014: 350~352)는 도시의 역사를 세 단계로 구분한다. 먼저 전자본주의 시대의 상업도시는 생산으로부터 분리된 도시다. 재화가 도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이때 도시는 교환을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 이와 달리 18세기부터 형성된 산업도시는 말 그대로 생산의 중심지로 나타난다. 공장이 들어서면서 도시가 경제 생산의 중심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장이라는 공간은 도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리되어 있다. 산업노동계급은 공장에서 생산을 한 뒤, 다른 생활 활동을 하기 위해 공장의 담을 지나 도시로 나간다”. 마

지막으로 오늘날 출현한 도시는 삶정치적 도시이다. “삶정치적 생산이 헤게모니를 쥐에 따라, 경제적 생산의 공간과 도시 공간이 서로 중첩되는 경향이 생긴다. 생산 공간과 도시 공간을 나누는 공장의 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노동자들은 메트로폴리스 전체에서, 그 모든 구석과 틈새에서 생산한다.” 이로써 그들은 이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메트로폴리스와 다중의 관계는 공장과 산업노동계급의 관계와 같다.”

이러한 유비는 현대 도시가 공장의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네그리와 하트에 따르면 지난 시기 공장은 산업노동계급의 세 가지 중심 활동, 즉 “생산, 내부적 마주침과 조직화, 적대와 반란의 표현”을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도시를 공장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논의에서는 메트로폴리스 역시 공통적인 것에 기초한 삶정치적 생산의 무대이자, 예측할 수 없는 마주침이 일어나는 장소이며, 적대와 반란의 장소로 나타난다. 이렇게 푸코에게서 통치술의 핵심 사례였던 도시는 네그리와 하트로 넘어 오면서 생산의 핵심 무대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도시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두 관점은 도시 커먼즈에 대한 상이한 접근을 보여줄 뿐이다. 각각은 도시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양면을 드러낸다. 한편에서 자율적인 생산이 일어난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자연’으로 이해하며 관리하는 장치가 작동한다. 이것은 서로 다른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양상들이다. 네그리와 하트가 커먼즈를 통한 도시의 생산 메커니즘을 보여준다면 푸코는 그것을 통치하는 지배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이를 우리의 맥락으로 가져오면, 창조성이라는 공통의 부는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생산의 결과물이지만 도시 정부에게 그것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해야 할 자연자원으로서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창조도시는 두 관점을 ‘생산적’으로 종합한다. 그 전략이 사회적 생산의 동학을 활용하면서 그 장에 개입하려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공장은 인간의 모든 활동이 자본주의적 생산에 포섭되는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었다. 네그리와 하트는 이렇게

외부가 존재하지 않는 실질적 포섭¹⁸⁾의 시대에 내부로부터 자본을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을 숙고한다. 그 요지는 자본은 생산의 자율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율성이 결국 자본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창조도시는 이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사회적 공장을 오히려 자본주의적 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 계열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플로리다는 창조성이 경제성장의 동력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사회적 공장의 논지와 상당 부분 닮아 있다. 차이가 있다면 자율주의 이론가들이 사회적 공장으로 나타나는 실질적 포섭을 넘어서고자 했다면, 플로리다는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활성화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푸코가 논하는 안전장치는 이 활성화 전략이 지닌 특성이다. 이제 두 관점이 종합된 창조도시의 특성을 살펴보자.

3. 창조도시라는 공장

1) 창조도시의 생산 동학

창조도시 담론은 신자유주의의 전개 과정에서 출현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서구의 지방정부는 대체로 국민국가의 하위 집행 단위로서 주민 복지를 중심으로 한 재분배 정책을 담당했다. 국민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던 포드주의 축적체제에서 도시 간 경쟁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지구지방화의 영향으로 국민국가의

18) 네그리와 하트는 마르크스의 ‘노동의 자본에의 실질적 포섭’이라는 개념을 삶정치적 맥락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한다. 마르크스의 실질적 포섭이 노동을 자본의 신체 안에 유기적으로 온전하게 통합하는 것이라면, “삶정치적 맥락에서는 자본이 노동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아니 실로 사회적 삶 전체를 포섭한다고 할 수 있다. 삶이 바로 삶정치적 생산에 투여되는 것인 동시에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네그리·하트, 2014: 211).

위상이 축소되고 도시가 경제 활동의 중요한 단위로 떠오르면서 지방 정부는 이른바 ‘기업주의’로 전환하게 되었다. “기업주의 도시(정부)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 독립성을 가지면서,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정책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능동적으로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도시를 의미한다”(최병두, 2016: 32). 그에 따라 도시가 기업처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공리가 되었다. 푸코의 말처럼 기업이 사회를 조형하는 힘으로 등장하는 신자유주의에서 “정부 활동과 기업 활동은 이제 근본적으로 동일”(브라운, 2017: 31)하기 때문이다.

창조도시란 그러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채택된 하나의 전략이다. 이 전략은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창조성 — 즉 공통의 부 — 을 경제 발전의 기초로 삼는다. 이 창조성은 도시 정부의 입장에서 도시에 잠재한 자연자원과도 같다. 이 자원은 물리적인 자원과 달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자원이지만, 자본의 의지를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자연적 현상’이다. 그러나 인구라는 자연성이 변형의 동인과 기술에 늘 열려 있는 것처럼 창조성 역시 양성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그 자연적인 현상, 경제 발전의 초석이지만 자율적으로 생산되는 그 자원을 어떻게 관리, 양성, 촉진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에 따라 창조도시론자들은 그 자원이 도시에 생산되는 법칙을 규명하려 한다. 그렇게 된다면 도시 정부는 그 법칙에 준해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었다. 대표적인 창조도시론자인 플로리다가 통계를 통해 찾아낸 법칙은 이른바 3T(기술, 인재, 관용)와 도시 경쟁력 간의 상관관계였다. 그에 따르면 특정 도시의 번영과 쇠락을 설명하는 그 세 가지 요소들은 한데 묶여 창조성 지수(creativity index)라는 척도를 구성한다(Florida, 2012: loc. 3591~3596).¹⁹⁾ 플로리다는 이 척도를 이

19) 본문주의 loc.는 해당 책의 킷들판에 표시된 위치(location)다. 쪽수가 표현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loc.를 기재했으며 이후 주에서는 숫자만 기재한다.

용하여 도시의 순위를 매기면서 좀 더 창조적인 도시를 만들 것을, 다시 말하면 그 순위에서 좀 더 상위 순번을 획득할 것을 주문한다. 이를 위해 그가 제시한 방식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창조성이 생산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질을 갖춘 장소를 조성함으로써 그 과정을 양성하거나 창조계급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논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플로리다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는 “모든 인간의 창조성을 인정하고 양성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의 창조적 에너지, 재능, 잠재력을 촉발시키는 것이다”(163). 그렇다면 창조성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그는 창조성을 “개인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으로 이해한다(654). 따라서 창조성이 번성할 수 있는 “독특한 사회적 환경”(662)을 조성하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러한 장소는 창조성이 자라날 수 있다는 점뿐 아니라 창조계급을 끌어들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에 따르면 많은 학자들이나 도시 리더들의 관심사는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달려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창조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기업이 창조적인 사람들을 쫓아 자리하기 때문이다. 즉 기업은 창조계급을 찾아가고, 창조계급은 특정한 장소를 선호하므로, 성장을 원하는 도시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 플로리다에 따르면 그러한 장소란 두터운 노동 시장, 다양한 생활방식, 사회적 상호작용, 다양성, 진정성, 정체성, 다양한 신(scene) 등을 갖춘 곳을 말한다. 그는 이것을 “장소의 질(quality of place)”(4269)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특질이 창조계급을 끌어들이고 결국 이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창조성의 양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에게 있어 창조성의 양성은 사회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확장된 창조성은 경제를 추동하는 힘이자 “경제우위의 결정적인 원천”이다. 따라서 경제를 움직이

는 힘은 공장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창조적 과정들이 된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발달의 최고 수준에서 사회적 관계는 생산 관계의 계기로 전환되며, 사회 전체는 생산의 절함으로 된다”고 이야기한 프론트를 연상시킨다. 플로리다가 이해하는 “창조 시대”란 “사회 전체가 공장의 한 기능으로 살아가는” 시대다. 그에 따르면,

장소는 산업 기업을 대신하여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경제적 사회적 조직 단위가 되었다. 도시는 늘 경제성장의 중요한 엔진이었지만 오늘날 지식주도 혁신 경제에서 훨씬 더 큰 중요성을 획득하고 있다. 여기서 장소기반 생태계는 경제성장에 결정적이다(3069).

이제 하나의 경제 단위가 된 도시에서는 무수한 노동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진정한’ 노동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따라서 많은 노동이 무상으로 자본에 흡수된다. 가령 플로리다는 신에 대한 연구를 인용하면서 보헤미안 마을이 예술적 정체성의 중심일 뿐 아니라 경제적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중고 양품점, 늦은 밤까지 영업하는 바, 타투 가게, 담배 가게, 갤러리, 외국 식당, 사회 주변부 개인들로 가득 찬 그런 동네는 새로운 소비 양식을 생성하는 진정한 실험실로 기능한다”(Silver, Clark, and Graziul, 2011. Florida, 2012: 4550에서 재인용). 이 ‘실험실’은 기업에게 어떤 상품이 가장 선도적이며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줄 것이다. 보헤미안 마을의 상인, 예술가, 기획자 등이 자발적으로 수행한 이른바 창조적 활동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의 생산과정에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의 활동은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는 노동이며, 기업이 무상으로 전유할 수 있는 자본의 공통재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창조성에 대한 헌신’을 전유하는 것은 창조경제의 중요한 작동 방식 중 하나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배타적 지배를 사회 전체로 확장”

하는 공장을 플로리다는 이렇게 찬양한다.

자본주의는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괴짜들과 관행을 거부하는 이들이 지닌 재능을 포획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그 결과 놀라운 변화를 잇따라 성취했다. 보헤미안적인 변두리에서 활동하는, 한때는 기이한 이단자로 이해되었던 이들을 붙잡아 혁신 과정과 경제성장의 중심부에 가져다 놓은 것이다. ... 창조적 개인은 더 이상 우상 파괴자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 — 또는 그녀는 — 새로운 주류다(460).

사회 주변부에서 활동하는 괴짜들, 이단자들, 예술가들은 이렇게 사회적 공장의 노동자로 부상한다. 자본주의가 “노동력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부활재생산노동을 필요로”(페데리치, 2013: 27) 했던 것처럼, 플로리다의 사회적 공장은 창조성에 헌신하는 비임금 노동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네그리와 하트가 지적한 것처럼 그 과정은 자본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자본가는 이 과정을 조직할 수 없다. 플로리다 역시 창조 공동체의 출현이 위에서부터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아래로부터 출현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그 과정을 촉진하는 전략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다. 이미 진행 중인 아래로부터의 공동체 기반 시도들을 인식하고 향상시키는 현명한 전략들은 창조 공동체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Florida, 2012: 5187). 즉 플로리다는 창조성을 양성하는 사회적 과정 자체를 직접 조직할 수는 없다고 해도 그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가 장소의 질을 강조하는 이유다.

요컨대 창조도시라는 사회적 공장은 삶의 모든 측면들을 노동으로 통합하고 노동하도록 강제하는 삶정치적 기계다(파스퀴넬리, 2013: 239~240). 이 공장은 도시의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활동들을 자신의 생산라인으로 재배치한다. 예술가들의 집합적 활동이 형성한 언더그라운드

문화가 도시 부동산 경제의 원동력이 된 사례는 이미 널리 소개되었다. 파스퀴넬리는 이를 2차 젠트리피케이션, 즉 “젠트리피케이션 문법의 전 지구적 대중화와 그것의 ‘집합적 상징자본’과의 접속”(244)으로 설명한다. 이것은 문화예술과 젠트리피케이션이 결합된 국면을 가리킨다. 파스퀴넬리는 플로리다가 이러한 이론적 맥락을 가져다가 “지방 대도시를 위한 진부한 마케팅 전략들로 변형해서 ‘창조도시’라는 새 이름을 부여했다”(245)고 주장한다. 즉 창조도시란 예술과 결합한 새로운 젠트리피케이션의 문법을 모방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파스퀴넬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동체의 ‘창조성에 대한 헌신’을 전유하는 창조경제의 메커니즘을 감안해 볼 때 우리는 창조도시가 도시에서 생산되는 공통의 부를 양성하여 그것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관점에서 커먼즈는 아래로부터 자율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체계다. 즉 그것은 외부에서 조직될 수 없다. 따라서 자본에게 커먼즈란 하나의 자연으로 이해된다. 그것이 자본에 의해서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산업생산에서 자연자원을 채굴하여 생산과정에 투입하듯이, 비물질적 생산에서 ‘커먼즈라는 자연’의 이용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위의 논의에서도 쉽게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이용 전략은 푸코의 안전메커니즘과 흡사하다. 실제로 안전장치에 대한 푸코의 설명과 창조성 양성 방안에 대한 플로리다의 논의를 나란히 놓으면 우리는 많은 유사성을 발견하게 된다. 사회 환경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통계의 활용, 인구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환경’의 정비, 본질적인 목표로서의 ‘경쟁(력)’, 사회의 모델이 된 ‘기업’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플로리다는 그러한 개입을 ‘생산적으로’ 활용한다. 다시 말해서 창조도시 전략은 메트로폴리스의 생산 동학—커먼즈를 통한 생산, 내부적 마주침과 조직화, 적대와 반란—에 개입한다. 창조도시론자들은 네그리와 하트처럼 비물질적인 것의 가치가 오늘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창조성을 중요하게 다루며 그것을 사회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네그리와 하트의 표현을 빌면 삶정치적 생산의 생산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입되는 전략이 마주침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물론 마주침의 과정 자체를 조직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창조도시에서 중요한 전략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는 지역 음악 신을 지원하는 것이 하이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며 시내 중심가에 쇼핑몰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기술과 음악 신은 함께 움직인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사람들, 창조성에 열린 장소를 반영하기 때문이다”(Florida, 2012: 4521). 이렇게 그는 도시에서 특정한 마주침의 환경을 조성하여 창조성의 흐름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적대와 반란은 창조도시 전략에서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어진다. 물론 어떤 불평등의 문제를 인식하긴 하지만 경제의 ‘발전’을 우선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창조도시는 그렇게 계급 간의 힘 관계를 무시하고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협력의 세계를 그린다. 사실 그들이 기대는 공통의 부가 많은 경우 갈등과 적대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러한 도시 전략에서 배려의 대상은 도시 내의 다종다양한 삶이라기보다는 도시 그 자체다. 창조계급을 불러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환경 조성이란 달리 말하면 다른 유명 해외도시만큼 혹은 그보다 높은 집합적 상징자본을 구축하는 문제다. 때문에 그 전략에서 계발될 수 있는 것은 상품으로서의 도시, 경쟁력을 갖춘 도시라는 가상이며, 그 기준은 도시 바깥 어딘가—수많은 ‘성공’ 사례들과 창조성 지수 같은 척도들—에 있다(권범철, 2015). 이제 도시는 하나의 추상, ‘경쟁력’ 그 자체를 추구하며, 여기서 커먼즈의 관리, 조정, 흡수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창조성 같은 비물질적 특질이 생산과정에서 점점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특질은 대부분 사회적 협력을 통해 생산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창조도시는—파스쿠넬리의 말처럼 삶 활동을 노

동으로 통합하는 삶정치적 기계이면서 —‘생산적인’ 안전장치다.

2) 창조도시에서 예술 노동의 흡수

메트로폴리스가 하나의 공장이 되면 공장의 노동자 역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클리버(Harry Cleaver)는 트론티의 『사회적 자본』(Tronti, 1973)을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노동계급의 재생산은 공장에서의 노동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의 노동 또한 포함한다. ... 축적이란 노동력 이외의 모든 상품을 생산하는 현역 노동자군의 축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 자체를 재생산하는 산업예비군의 축적 또한 의미한다. 노동계급이 일하고 있는 ‘공장’은 사회 전체, 즉 사회적 공장인 것이다. 노동계급은 비공장 노동자까지 포함되도록 새롭게 정의되어야 했다(클리버, 1986: 97~98).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타를 비롯한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비공장 부문에 대한 트론티의 연구를 크게 확장시켰다. 이들은 공장 노동 중 지급되지 않은 부분(잉여노동)뿐 아니라 공장 밖에서의 노동 중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주목했다(클리버, 1986: 100). 이를 통해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자본이 막대한 양의 부불가사노동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라 페데리치(2013: 24)는 “가정과 가사노동을 공장제의 ‘타자’가 아니라 그 기초”로 이해한다.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여성들의 가사노동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기반이라는 것이다. 가치는 공장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력이 재생산되지 않는다면 공장은 당연히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여성의 그러한 비임금 노동을 무상으로 전유하는 데 기초한다. 즉 여성의 비임금 노동은 자본의 공통재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가사노동이 경제적으로 비가시화되는 방식이

다. 페데리치(2013: 38)의 말처럼 “가사노동의 차이는 여성에게 강요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내면 깊이 자리한 여성 특유의 기질에서 비롯된 자연적 속성, 내적 욕구, 열망에서 기인한 행위로 변신했다는 점에 있다”.²⁰⁾ 즉 “가사노동을 사랑의 행위로 바꿔 놓음으로써”(40) 여성의 가사노동은 ‘진정한’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사랑의 행위가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는 까닭은 사랑은 노동과 달리 —물론 노동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성시되지만— 숭고한 것으로 이상화되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즉 노동을 가격으로 환산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사랑이라는 건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로 여겨진다. 자식을 아낌없이 돌보는 어머니, 남편을 ‘내조’하는 아내의 돌봄 노동은 헌신적인 사랑에서, 자신의 욕구에 따라 우리나라의 것이므로 값을 매길 수 없고, 매겨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성의 노동은 사랑의 이름으로 이상화되어 숭고의 대상이 됨으로써 경제 외적인 지위를 획득한다. 숭고의 대상에 돈을 지불하는 건 심지어 모욕적인 일로 치부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성의 노동을 찬양할 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이 여성들의 비임금 노동을 가시화할 때 사회적 공장은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었다. 그들은 그 개념을 바탕으로 여성들 역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우리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공장에는 여성들과 유사하게 비임금 노동을 수행하는 또 다른 노동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카펜치스(2018: 15)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은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최소한 네 가지 양태로 구분할 수 있다(<표 2> 참조). 첫 번째 조립

20) “여성의 가사노동과 양육 노동은 그들의 생리 기능의, 그들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의, ‘자연’이 여성에게 자궁을 주었다는 사실의 연장으로 이해된다. 출산 노동을 비롯하여 삶의 생산에 들어가는 모든 노동은 자연과 인간의 의식적인 상호작용, 즉 진정한 인간 활동으로 이해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동·식물을 생산하고 이 과정을 통제하지 않는 자연의 활동으로 이해된다”(미즈, 2014: 121).

〈표 2〉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들

	억압 여부		합법 여부		임금 여부	
	자유	강압	합법	불법	임금	비임금
조립라인	○		○		○	
가사노동	○		○			○
노예노동 ²¹⁾		○	○			○
범죄	○			○	○	

자료: 카펜치스, 2018: 15.

라인의 노동은 일반적으로 유일하게 인정받는 노동이다. 그것은 ‘자유롭고’ 합법이며 임금을 받는다. 두 번째 가사노동은 조립라인 노동처럼 ‘자유롭고’ 합법이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다. 노예 노동은 아마도 최악의 노동이다. 강압적이며 임금도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범죄는 불법이라는 점만 빼면 가사노동이나 노예 노동보다 나아 보인다. 카펜치스가 이러한 구분을 시도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에 대한 결산은 이러한 다양한 부류의 노동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일반적으로 노동이 임금을 받는 합법적인 자유로운 노동, 즉 임금 노동으로만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정리한 이 표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가 공장이나 사무실에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심지어 범죄현장에서도) 생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것은 일군의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이 이미 지적한 것들이다.

이 표에서 중요한 지점은 오히려 각 기준 사이에 그어진 구분선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자유와 강압을, 합법과 불법을, 임금과 비임금을 나누는 선 말이다. 그 실선이 표에서는 끊기지 않고 그어져 두 영역을 선명하게 나누고 있지만, 현실에서 그 구분은 그리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먼저 조립라인 노동은 ‘강압’이 아닌 ‘자유’로 구

21) 베일스(Kevin Bales)는 오늘날 노예제가 번창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베일스(2003)를 참고하라.

분되지만, 노동을 강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하지 않을 자유는 사실상 없음을 떠올려 보면 그 구분선은 그렇게 명료하게 그을 수 없다. 합법/불법의 여부 역시 한국(뿐만 아니라 지구 전역에 있는 수많은 곳)의 많은 작업장들이 불법적인 요소들—불법파견, 위장폐업,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과 함께 굴러가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 가사노동도 마찬가지다. 결혼, 임신 혹은 출산을 이유로 직장과 노동시장에서 차별 받는 여성들에게, 무엇보다 각종 가사노동이 본연의 임무로 주어지는 여성들에게 가사노동은 ‘자유’인가 ‘강압’인가? 여기에 분명하게 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가사노동이 노예노동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실에서 그 구분선들이 그렇게 명료하지 않으며 그 기준 자체가 자의적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구분선을 깨뜨리는 운동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1972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 캠페인은 주요한 사례다. 이 운동은 가사노동이 여성의 본성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임금과 비임금의 선을 무너뜨리는 것은 가사노동이 노동이라는 것을 가시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임금을 주장한 것은 여성들만이 아니었다. 학생들도 노동력 상품이 되기 위해 책을 읽고 기술을 익힌다는 점에서 노동자이며, 68혁명의 학생들은 이를 근거로 임금을 요구했다(구리하라, 2016).²²⁾ 이러한 투쟁들 덕분에 우리는 많은 비임금 노동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자본주의가 공장의 부불노동 외에도 얼마나 많은 무상노동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의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도시의 예술가들 역시 이러한 비임금 노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앞서 가사노동이 사랑의 이름으로 숭고화됨으로써 경제 외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가사노동의 이러한 지위는

22) 다음의 글도 참고하라. Caffentzis(1975), The wages for students students(1975).

예술이 사회적으로 누리는 지위와 유사하다. 한스 애빙(Hans Abbings)에 따르면,

예술의 에토스는 믿음과 도덕적 신념 그리고 적절한 행동을 위해 마련된 각종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신념은 예술은 곧 선(善)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예술가들은 소명의식도 가지고 있는데, 예술가들이라면 옹당 예술에 헌신하고, 기꺼이 예술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 (중략) ... 이러한 에토스는 지난 19세기, 예술과 엔터테인먼트가 분리되고 대중들이 예술과 실존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서 점차 발전했는데 ... 이윤을 추구하거나, 더 나아가 어느 정도 편안한 삶을 바라보기만 해도 이것은 예술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여겨졌다. ... 이러한 예술의 에토스에 가장 전형적인 슬로건은 다름 아닌 “예술을 위해 모든 것을”이다(애빙, 2014: 11).

“예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예술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어머니=여성을 연상시킨다. “상업적인 것에 대한 거부”는 “예술의 에토스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다. 돈을 잘 벌지 못해 생활고에 찌들어 있지만 “예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가난한 예술가’는 곧잘 숭고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예술가는 무언가 특별한 사람으로, 그들의 직업적 실천은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에 따라 ‘선’한 것을 추구하는 행위로 이해된다. 이러한 예술의 ‘숭고화’는 그것이 무상으로 착취될 수 있는 기반이다. 여성들의 가사 노동이 사랑이라는 숭고함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착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술가들의 노동 또한 예술이 선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착취된다. 그것이 숭고화될 수록 노동의 무대에서 지워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비가시성은 모든 자본주의적 삶의 비밀을 은폐한다. 사회적 잉여의 원천—비임금 노동—은 박탈되고 자연화되고 체제의 주변부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그것의 생산자들이 더욱 쉽게 통제되고 착취

될 수 있다”(카펜치스, 2018: 424).

우리의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도시 정부의 전략이 어떻게 예술가들의 노동을 흡수하는가이다. 예술가들의 활동은 공장의 노동자와는 달리 외부에서 조직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주침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창조도시의 중요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창조도시론자들이 언급하지 않는 그 환경의 또 다른 측면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임금 관계다. 베르첼로네에 따르면, “노동의 조직화가 점점 자율적으로 되어감에 따라 … 노동에 대한 통제는 더 이상 직접적인 직무 할당이 라는 테일러주의적 역할을 취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부분 임금 관계의 불안정화에 연결된 … 간접적인 메커니즘으로 대체되었다”(Vercellone, 2006). 임금 노동을 하지 않는/하지 못하는 많은 예술가들은 삶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그러한 불안정함은 도시 정부가 예술가들을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여성이 임금에서 배제되면서 남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처럼, 예술가 역시 임금에서 배제된 까닭에 국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제 익히 알려진 공식으로 사회적 공장의 노동들을 정리해보자. 클리버는 마르크스의 자본 순환에 노동력 재생산과정을 더해서 두 순환 과정의 결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Cleaver, 1977).

$$A: M - C(LP; MP) \cdots P \cdots C' - M'$$

$$B: LP - M - C(MS) \cdots P^* \cdots LP^*$$

(M: 화폐, C: 상품, LP: 노동력, MP: 생산수단, P: 생산과정, MS: 생계수단)

여기서 A는 화폐 순환을, B는 노동력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다. A의 과정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자본가는 화폐로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구매하고 상품(C')을 생산하여 시장에서 판매함으로써 가치를 실현하고 더 많은 화폐(M')를 얻는다. 즉 $M' = M + \Delta M$ 으로 정리되는 이 과정에

서 노동자는 증가된 잉여분만큼의 부분노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노동력이 계속해서 재생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B의 과정에서 노동자는 화폐(임금)로 생계수단(MS)을 구매한다. 그러나 그 수단들, 가령 식사를 위한 재료는 누군가의 노동(P*)으로 가공되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노동력 LP는 LP*로 재생산된다. 앞서 언급한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이 밝힌 것은 P*가 무상으로 착취되고 있다는 것, 부분노동은 공장만이 아니라 집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 노동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따라서 가사노동 역시 노동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위에서 카펜치스가 정리한 표를 인용하며 우리가 언급한 사항들은 P*가 가사노동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노동도 LP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P*에 속한다. 이것은 주로 학교라는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예술가들의 노동을 추가할 수 있다. 지식, 정보 등 비물질적 요소가 경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달리 말해 노동의 비물질화 경향 속에서 노동자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요구된다. 플로리다에게 그 능력이란 바로 창조성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여기는 다양한 창조성 형태들, 즉 기술적 창조성, 경제적 창조성, 예술적 창조성은 사실 깊게 연관되어 있으며 교류와 상호자극을 통해 서로를 강화한다. 그는 이것이 상이한 형태의 창조성을 지닌 이들이 창조 중심지에 모여 서로 교류하는 이유라고 설명한다(Florida, 2012: 624). 우리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예술가들의 활동은 ‘창조경제’ 시대 노동자들의 노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술가들도 P*를 수행한다. 이들 역시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처럼, 학업노동을 하는 학생처럼, 예술노동을 함으로써 노동력을 개선하고 재충전하는 비임금 노동을 수행한다. 이들의 노동은 모두 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누구나 뜻대로 전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통재”(페테리치, 2011: 157)다.

그런데 예술가들의 노동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활동은 도시의 집합적 상징자본을—예를 들어 하나의 관광 명소를—생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스콧이 유명 관광지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곳의 예술가들은 분명 상품 생산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각자의 욕망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하며, 집합적으로 삶을 재생산한다. 그들의 지향점은 더 많은 화폐 축적에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이 주목경제의 과정에 우연히 편입되어 불거리가 될 때, 도시 정부의 관점에서 그들의 활동은 관광지를 만들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정이 된다.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구매하여 조직하는 산업공장의 자본가와 달리 도시 정부는 아무런 구매 활동 없이, 아무것도 조직하지 않고 관광 명소를 갖추게 된다. 이것은 아무런 노력 없이 특수한 자연 명소를 획득한 경우와도 같다. 이때 스콧은 그 자체가 도시 정부/자본의 공통재로 흡수된다. 이때 만일 스콧 역시 플로리다가 말하는 “창조 중심지”에 속한다면 예술가들은 이제 이중의 노동을 수행하며, 따라서 이중의 착취를 겪는다. 그들은 한편으로 도시의 집합적 상징자본을 생산하고 다른 한편으로 창조시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재생산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의 활동은 분명 노동이지만 예술의 숭고화와 함께 그것은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들은 많은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에 의존해야 한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들의 행보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예술가 네트워크에 의존하며 스콧을 하거나 다른 삶의 방식을 고안할 수도 있고,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며 경쟁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 현실의 많은 예술가들은 대부분 그 사이를 오간다. 도시에서 커먼즈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다.

4. 결론: 도시의 변증법을 넘어서기

스콧은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것을 거부한 예술가들에게서 시작되

었다. 이 노동거부는 “그것이 공간이나 시간, 에너지를 두루 손아귀에 넣었을 때, 자기가치화(autovalorizzazione, self-valorization)²³⁾의 바로 그 가능성을 창조한다”(클리버, 1998: 368).²⁴⁾ 이 거부와 자기가치화는 우리가 파악한 스콧의 두 선, 즉 저항과 구성에 상응하는 것이다. 스콧의 예술가들은 자본의 틈새에서 공간을 장악하고 그곳을 대안적이고 자율적인 시간들로 채웠다. 이로써 이들은 “노동력 개념이 자본의 구성요소가 되는, 이론이 덧씌운 운명으로부터 명확하게 벗어난다”(네그리, 2005: 386~387). 사회적 공장의 개념은 자본주의적 지배가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실현되는 상황을 뜻하지 않는다. 사회가 공장이 될 때 이것은 노동의 사회화뿐 아니라 적대의 사회화를 의미한다. 즉 “계급적 적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발전의 역학을 포함하는 모든 것 속에 스며든다”(클리버, 1998: 338).

그러나 스콧의 활동은 자본의 또 다른 대응을 불러일으킨다. 사회적 공장을 기획하는 창조도시는 대안적이고 자율적인 시간을 도시의 스펙터클로 흡수하려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조도시 전략은 예술가들의 자율적 활동이 보여 준 가능성, 도시를 변화시키고 활성화하는 힘을 전유하려는 기획이다. 그 기획 안에서 예술가들은 자신도 모르게 스펙터클의 생산에 연루된다. 이것은 우리가 살펴본 현대 도시의 변증

23) “마르크스가 때때로 ‘자기가치화’라는 용어를 ‘가치화’의 동의어로서 사용했지만, 네그리는 완전히 별개의 의미를 제출했다. 그 접두어 ‘auto’ 혹은 ‘self’의 사용은 자본주의적 가치화로부터 자율적인 가치화의 한 과정 — 자본주의적 가치화에 대한 단순한 저항을 넘어 자기구성의 적극적인 기획으로 나아가는 자기규정적인, 자기결정적인 과정 — 을 나타낸다”(클리버, 1998: 365). 네그리의 최근 연구에서는 ‘구성’이 이 개념을 대체했다(366). Negri(1992)를 참고하라.

24) “노동거부는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사실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를 의미한다. 노동거부란 착취로부터 물러나는 일상적 활동, 삶의 가치를 줄이면서까지 자본의 가치를 증식시키고 잉여가치를 생산하라는 의무를 거부하는 행동이 자본주의의 재구조화, 기술적 변화, 사회 제도의 전반적 변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중략) … 자율성은 사회의 시간이 자본주의의 시간성에서 독립하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것이 노동거부의 의미이다”(비포, 2013: 138~139).

법, 즉 노동력으로의 환원에 대한 거부와 그것에 기초한 자기가치화가 다시 자본의 가치화로 연결되는 회로였다. 창조도시의 예술가들은 이렇게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것은 자본주의라는 사회체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들뢰즈와 가타리(2014: 71)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흐름들의 탈영토화와 그것의 재영토화라는 이중 운동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탈영토화하는 흐름들을 자신의 경제의 기초로 만든다. “자본주의적 사회체는 수많은 작은 탈주선들을, 심지어는 창조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들 외부에서 작동하도록 허용되는 자율적 지대들을 갖고 있다. … 그러나 그러한 공간들(혹은 탈주선들)은 —적어도 정상적인 작동에서는— 자본과 대립하기보다 그것을 풍부하게 한다”(쑤벤, 2005: 276). 그러므로 “자본의 본질은, 착취의 새로운 영토를 열어젖히기 위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것의 탈주선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이다”(107). 자본주의는 그렇게 탈주선들을 따라 계속 확장된다.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재영토화를 행하고, 그리하여 탈코드화된 흐름들이 사회 공리계의 어떤 끄트머리에서도 탈주하지 못하게 막는 일이다”(들뢰즈·가타리, 2014: 435). 그러므로 문제는 “육망적 생산”의 탈영토화된 흐름들이 어떻게 재영토화를 벗어날 수 있는 가이다(523). 들뢰즈와 가타리가 제시하는 출구는 “과정으로서의 탈영토화”이다. 그 과정은 “새로운 대지”를 창조하는 한에서만 자기를 해방할 수 있다(528). 이 새로운 대지란 무엇인가? 그것은 “육망적 생산의 과정의 완성과 일치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진행하고 있는 한, 그리고 진행하는 만큼 언제나 이미 완성되어 있다”(628).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새로운 대지란 “커먼즈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커먼즈를 통한 투쟁”이다. “우리가 다른 유형의 사회적 관계들을 살아가는 그만큼 …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이후의 구성된 미래 상태로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에도 불구하고 구성적 과정으로서의 삶”(De Angelis, 2007: 239)이다.

이것은 충분한 답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홀러웨이의 말처럼 행위는 언제나 개념을 넘쳐흐르며, 우리는 선불리 예단할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삶과 스펙터클이 끝없는 길항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어떤 가능성의 조건일 뿐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도시 정부의 전략에 대한 계급적 관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놓칠 때 우리는 예술가를 노동력으로, 자본을 그들 외부의 독립적인 힘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급적 관점을 통해 흡수의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대항의 전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화폐는 자본가에게는 투자의 수단이지만 임금 노동자에게는 생존수단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다(카펜치스, 2018: 425). 페데리치가 재생산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와 유사하다.

‘재생산’은 서로 모순되는 양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를 민중으로 재생산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를 착취 받는 노동자로 재생산한다. 우리가 제기할 문제는 재생산 노동을 우리의 투쟁의 재생산으로 바꾸는 방법이다(Federici, 2016).

이러한 관점은 재생산 노동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비임금 노동으로 착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바로 그 사실 때문에—자본이 여성의 비임금 노동에 의존한다는 사실 때문에—재생산 노동을 다르게 재구성한다면 대안적인 생산양식을 향한 길도 열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계급적 관점이란 다른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다. 그 관점은 자신에게 주어진 대상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인식할 때만 가능하다. 그래야 개입의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커먼즈를 전유하기 위한 전략들이 크게 부상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전략들을 재전유하는 실천이다. 도시 정부가 불법 점거 공간을 관광지로 흡수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그 전략을 재전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처음 예술 스콧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오아시스 프로젝트>는 공공기금을 공공기관에 대한 투쟁 기금으로 변용했고,²⁵⁾ 문래동의 예술가들은 서울시의 창조도시 전략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자신들의 공동작업 공간으로 바꾸었다.²⁶⁾ 이것은 창조도시 전략의 성격이, 나아가서는 ‘뒤집어진’(혹은 친자본주의적인) 커먼즈의 성격이 단순히 우리의 사용법에 달린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상충하는 힘들의 역학 관계에 좌우된다. 중요한 것은 경쟁 관계를 조장하는 도시 정부의 전략을 공동체 네트워크의 확장을 위한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가, 나아가서 커먼즈를 전유하는 전략 일반을 어떻게 새로운 연대의 도구로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다. 계급적 관점은 그 문제를 문제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우리는 그 관점에 기초하여 자본과 커먼즈의 끝없는 교전을 이야기할 수 있다.

푸코는 일찍이 우리에게 모든 것은 정치적 구성물이라는 것을 알려 준 바 있다. 사회가 아니라 사회화가, 국가가 아니라 국가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커먼즈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커먼즈가 아니라 공통화(communing)가 존재한다고 말이다. 커먼즈는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공통화의 과정이자 그것에 의해 발생된 효과다. 그러므로 창조도시라는 뒤집어진 커먼즈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예술가들의 비임금 노동에 의존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 다른 가능성을 위한 조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커먼즈가 처한 위험에 대한 인식은 재

25) <오아시스 프로젝트>는 2006년 ‘예술포장마차 오아시스 전국 투어’를 약 두 달 동안 태백, 정선, 여수, 벌교, 매항리, 대추리, 주문진, 지리산에서 진행했는데, 이때 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을 각 지역에서의 활동을 위해 공유했다. 특히 당시 미군기지 문제로 정부와 주민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대추리에서 문예위의 ‘소외지역 찾아가는 예술’ 행사를 위한 기금은 대추리 활동가들의 투쟁 기금으로 활용되었다.

26) 서울시의 창조도시 전략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서울시의 창의문화도시 마스터 플랜에 따라 계획된 <서울시창작공간>을 가리킨다. 서울시창작공간은 서울시 곳곳에 설립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문래예술공장>이라는 이름으로 2010년 1월 문래동에 만들어졌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연구에서 다룬다.


전유를 향한 길을 여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원고접수일: 2019년 07월 31일

심사완료일: 2019년 08월 31일

게재확정일: 2019년 09월 28일

최종원고접수일: 2019년 10월 01일

 AbstractThe Absorption of Urban Commons under Neoliberalism:
Focused on Creative City Strategy & Art Action

Kwon, Beomchul

This study deals with the risk of absorption of commons under neoliberalism, centered on art squat and creative city strategy. Creative city strategy seeks to utilize the activities of communities mobilized for solving social problems more productively. In other words, the strategy that aims to make socially produced creativity as the basis of economic development is concerned with how to cultivate it socially, assuming that the immaterial qualities of creativity occupy an increasingly important place in contemporary economy. This discourse of creative city shares a point similar to the social factory and the biopolitical production concept that understand that society as a whole becomes the moment of production. However, the creative city discourse makes a crucial difference from the autonomist Marxism writers in that it tries to utilize real subsumption(social factory) positively and ‘productively’. In this regard, we can understand the creative city as a biopolitical machine that integrates life activities into labor, or ‘productive’ security dispositif. In the process, artists’ commons are being transformed from the basis of autonomous life into an instrument for improving urban competitiveness.

These points indicate that commons are in a complex situation today. Commons emerged as an alternative in the threat of neoliberalism, but anti-capitalist subjects were not the only ones to pay attention to it. As the neoliberal program as a accumulation strategy reveals its limit, the commons began to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it. At this time, the commons was the exit chosen by capital as an alternative to neoliberalism (as opposed to capital). As a similar case, community is called as the subject to solve social problems. Thus the commons are not a sound discourse

as an alternative to the state and market, but are being polluted as with many other languages under capitalism. Now, it is time to reclaim the commons from the ongoing process. At this time, the class analysis of the commons can be a tool to open the way for reappropriation away from the risk of absorption.

Keywords: commons, squat, creative city, social factory, unwaged labor

참고문헌

구리하라 야스시. 2016. 『학생에게 임금을』. 서영인 옮김. 서유재.

권법철. 2015. 『집합적 자기배려의 가능성에 대하여』. 2015년 제7회 맑스코뮤날레
분과세션 <예술인간의 탄생> 발제문.

_____. 2017. 『현대 도시의 공동체와 재생산의 문제』. 《공간과 사회》, 제27권 2호
(통권 60호), 한국공간환경학회, 119~149쪽.

김 강. 2008. 『삶과 예술의 실험실 스캇』. 문화과학사.

김주환. 2012.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계보학—기업의 사회책임경영과 윤리적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96호, 비판사회학회, 210~251쪽.

김현숙. 2008. 『현대 미술에서 예술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김윤환. 2013. 『예술사회』. 책으로여는세상.

네그리, 안토니오. 2005. 『혁명의 만화』. 영광 옮김. 갈무리.

네그리, 안토니오·하트, 마이클. 2001. 『제국』. 윤수중 옮김. 이학사.

_____. 2008. 『다중』. 조정환·정남영·서창현 옮김. 세종서적.

_____. 2014. 『공동체』. 정남영·윤영광 옮김. 사월의 책.

다위어-위테포드, 닉·드 퓨터, 그릭. 2015. 『제국의 게임』. 남청수 옮김. 갈무리.

동즐로, 자크. 2014. 『사회의 동원』. 『푸코 효과: 통치성에 관한 연구』. 이승철·심성
보·이규원·유진·전의령·최영찬 옮김. 난장, 251~265쪽.

드보르, 기. 1996. 『스펙터클의 사회』. 이경숙 옮김. 현실문화.

들뢰즈, 질·가타리, 펠릭스. 2014. 『안티 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분열증』. 김재인 옮
김. 민음사.

마라찌, 크리스티안. 2014. 『자본과 정동』. 서창현 옮김. 갈무리.

마르크스, 칼. 2008. 『자본 I-1』. 강신준 옮김. 길.

미즈, 마리아. 2014.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최재인 옮김. 갈무리.

박주형. 2013.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제23권 1호(통권 43호), 한국공간환경학회, 4~43쪽.

베일스, 케빈. 2003. 『일회용 사람들』. 편동원 옮김. 이소출판사.

브라운, 웬디. 2017. 『민주주의 살해하기』. 배충효·방진이 옮김. 내인생의책.

‘비포’, 프랑코 베라르디. 2013.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 정유리 옮김. 난장.

쑤번, 니콜라스. 2005. 『들뢰즈 맑스주의』. 조정환 옮김. 갈무리.

애빙, 한스. 2014. 『구조적 빈곤: 왜 예술경제의 특수성은 계속되는가?—예술세계 내
의 가난한 예술가들에 대한 착취』. 제6회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노
동하는 예술가, 예술환경의 조건> 발제문.

윤수중. 2013. 『자율운동과 주거공동체』. 집문당.

- 최병두. 2016. 『창조경제와 창조도시』. 열린길.
- 카펜치스, 조지. 2018. 『피와 불의 문자들』. 서창현 옮김. 갈무리.
- 클라인, 나오미. 2012. 『공통재를 되찾기』. 『자본의 커뮤니티즘, 우리의 커뮤니티즘: 공통적인 것의 구성을 위한 에세이』. 연구공간 L 엮음. 난장.
- 클리버, 해리. 1986. 『자본론의 정치적 해석』. 권민학 옮김. 풀빛.
- _____. 1998.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있어서의 계급 관점의 역전』. 『사빠띠스따』. 이원영·서창현 옮김. 갈무리.
- 파스쿠넬리, 맛테오. 2013. 『동물혼』. 서창현 옮김. 갈무리.
- 페데리치, 실비아. 2011. 『캘리번과 마녀』. 황성원·김민철 옮김. 갈무리.
- _____. 2013. 『혁명의 영점』. 황성원 옮김. 갈무리.
- 푸코, 미셸. 2011.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오트르망 옮김. 난장.
- _____. 2012.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79년』. 오트르망 옮김. 난장.
- 하비, 데이비드. 2005. 『신제국주의』. 최병두 옮김. 한울.
- _____. 2007.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최병두 옮김. 한울.
- _____. 2014. 『지대의 기법』. 『반란의 도시』. 한상연 옮김. 에이도스.
- 홀러웨이, 존. 2013. 『크랙 캐피털리즘』. 조정환 옮김. 갈무리.

- Caffentzis, G. 1975. "Throwing away the ladder: the universities in the crisis." *Zerowork: Political Materials*, vol. 1, pp. 128~142.
- _____. 2004. "A Tale of Two Conferences. Globalization, the Crisis of Neoliberalism and Question of the Commons." *The Commoner*. <http://www.commoner.org.uk/?p=96>.
- _____. 2010. "The Future of 'The Commons': Neoliberalism's 'Plan B' or the Original Disaccumulation of Capital?" *New Formations*, Number 69, Summer 2010, pp. 23~41.
- Caffentzis, G. & Federici, S. 2013. "Common against and beyond capitalism." *UPPING THE ANTI*, issue 15(september), pp. 83~91.
- Cleaver, H. 1977. "Malaria, the Politics of public health and the international crisis."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9, no.1, pp. 81~103.
- De Angelis, M. 2007. *The Beginning of History: value struggles and global capital*. Pluto Press.
- _____. 2009. "The tragedy of the capitalist commons." *TURBULENCE* #5.
- _____. 2013. "Crises, capital and co-optation: Does capital need a commons fix?" *The Wealth of the Commons: A World Beyond Market and State*. Levellers Press.
- _____. 2017. *Omnia Sunt Communia: Principles for the Transition to Postcapitalism*. Zed Books.
- Erman, T. 2001. "The politics of squatter(Gecekondü) studies in Turkey: The changing repre-

- sentations of rural migrants in the academic discourse.” *Urban Studies*, Vol.38, No.7.
- Federici, S. 2016. “Social Reproduction: Between the Wage and the Commons.” Interview with Marina Sitrin, *ROAR Magazine*. <https://roarmag.org/magazine/social-reproduction-between-the-wage-and-the-commons>.
- Florida, R. 201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Revisited*. Basic Books, Kindle version.
- Hardt, M. 1990. *The Art of Organization: Foundations of a Political Ontology in Gilles Deleuze and Antonio Negri*.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Isla, A. 2009. “Who pays for the Kyoto Protocol?: Selling Oxygen and Selling Sex in Costa Rica.” *Eco-Sufficiency and Global Justice: Women Write Political Ecology*. ed. Ariel Salleh, London: Pluto, pp. 199~217.
- Meillassoux, C. 1981. *Maidens, Meal and Money: Capitalism and the Domestic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dnight Notes Collective. 1990. “The New Enclosures.” *Midnight Notes*, #10.
- Mies, M. & Shiva, V. 1993. *Ecofeminism*. London, Zed Books.
- Negri, A. 1992. “Interpretation of the Class Situation Today: Methodological Aspects.” *Open Marxism* II, pp. 69~105.
- Neuwirth, R. 2007. “Squatters and the cities of tomorrow.” *City*, vol.11, no.1.
- Silver, D., Clark, Terry N., & Graziul, C. 2011. “Scenes, Innovation, and Urban Development.” *Handbook of Creative Cities*, ed. David Emanuel Andersson, Åke Emanuel Andersson, and Charlotte Mellander, Cheltenham, UK: Edward Elgar, pp. 229~258.
- The wages for students students. 1975. *Wages for Students*. <http://zerowork.org/WagesForStudents.html>.
- Tronti, M. 1966. “Factory and Society,” trans. Guio Jacinto. *Operai e Capitale*. <https://libcom.org/library/factory-society>.
- _____. 1973. “Social Capital.” *Telos*, No.17, Fall 1973, <https://libcom.org/library/social-capital>.
- Vercellone, C. 2006. “The new articulation of wages, rent and profit in cognitive capitalism.” Trans. Arianna Bove, http://www.generation-online.org/c/fc_rent2.htm.
- World Bank. 1992. *World Development Report 1992*.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Wright, S. 2002. *Storming Heaven: Class Composition and Struggle in Italian Autonomist Marxism*, Pluto Press.